

조음점자질 [cor]의 미표시

고 영 진
(대전대학교)

Ko Young-Jin(1995). [cor] underspecification in FG. *Linguistics vol 3*. Such phonologists as Pulleyblank (1986), Archangeli & Pulleyblank(1986), Archangeli(1988)introduce the underspecification theory to Feature Geometry(FG). In coronals, unmarked and universal segments, Feature Geometry does not have any place features as a terminal feature of the place node, so it has no place node also. The FG explains naturally some questionable phonological processes as coronal assimilation, vowel harmony. and consonant liaison.

The attachment of [cor] underspecification to FG is useful. However, it has serious problems also to analyze some phonological processes. For example, vowel harmony does not always occur across coronals, in some cases the medial consonants are not coronals. In this case [cor] underspecification is useless. And it is doubtful to explain the resyllabification of the preceding complex segments coda as a following syllable onset and non-transparency of coronals in Korean umlaut and some Korean vowel harmony.

Finally, this paper is not content with only showing some problems of [cor] underspecification in FG, steps further, suggests some alternations to the [cor] underspecification. It is replaced by spreading and delinking for coda neutralization and assimilation, by Grave node as a subordinate node of the place node for Korean umlaut, by segregation of vowel and consonant place nodes for vowel harmony, and by conflation of vowel and consonant place nodes for some phonological processes concerning adjacent consonants and vowels.

1 서론

비 선형음운이론(Nonlinear Phonology)은 모음조화와 다른 자음에 비해 쉽게 다른음에 동화하는 현상 등의 설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

표시이론(Underspecification Theory)을 도입 하였으며, 이 이론은 무표적(unmarked)인 자질은 분절음의 기저에 표시 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몇몇 학자들은 자질계층이론(Feature Geometry)에도 적용하여 급기야 설정음(coronals)의 조음점자질인 [cor]을 조음점마디(Place Node)에 표시하지 않고, 조음점마디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은 문제가 되었던 여러 음운현상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 또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미표시이론들 하나 하나를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표시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 되었던 여러 음운현상들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미표시이론의 문제점을 음운현상들을 통해 짚어 볼 것이며, 5장에서는 전설고모음(front high vowel)인 [i]의 조음점 자질을 [cor]로 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 점검과, [cor]로 보아 미표시이론 처럼 미표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r]미표시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6장에서 간단히 제시 하겠다.

2. 미표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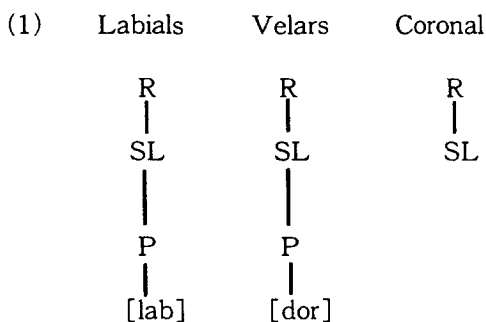
선형음운이론(Linear Phonology)에서는 모든 분절음(segments)을 기저에서 표층까지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자질을 모두 표기하였다. 그러나 미표시이론은 분절음의 자질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잉여적이며, 음운현상의 설명에도 타당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모든 자질을 다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처럼 분절음의 필요한 자질만을 표기하자는 이론이 미표시이론이며 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Kiparsky(1982)로 Archangeli(1984), Pulleyblank(1986), Borowsky(1986), Archangeli / Pulleyblank(1986) 등도 이에 동의하였다.

미표시이론은 본래 두 가지 형태의 이론으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급진적 미표시이론(Radical Underspec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대조적 표시이론(Contrastive Specification)이다.

2.1. 급진적 미표시이론

Kiparsky(1982), Archangeli / Pulleyblank(1986), Archangeli(1988), Mester / Itô(1989), Mohanan(1989), Grignon(1984), Pulleyblank(1986)등이 제안한 급진적 미표시이론은 예상할 수 없는 값만을 기저에 표기하고 다른 값은 도출과정에서 잉여규칙(redundancy rule)으로 채워지거나 음성적인 요소 안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보며, 그 기준은 유표성(markedness)에 의한

다. 이 이론을 자질계층이론에 도입하면 자질계층의 도식에 [lab]이나 [dor]은 조음점마다에 표시되지만 [cor]은 가장 무표적(unmarked)인 자질로 조음점마다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cor]의 경우 그것을 지배하는 상위마다인 조음점마다 조차도 없는 것으로 본다(Paradis / Prunet 1992 ; Pulleyblank 1986). 이를 도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R: root, SL: Supera Laryngeal Node,
P: Place Node, [lab]:[labial], [dor]:[dorsal])

도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표시이론은 [lab]과 [dor]은 조음점마다의 하위자질로 표시하고 있지만 [cor]은 조음점마다 조차도 갖지 않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대조적 표시이론

Steriade(1987), Clements(1988)등이 제안한 대조적 표시이론은 미표시이론의 하나로 급진적 미표시이론과 달리 자질의 유표성에 의하지 않고 잉여성에 의한다.

대조적 표시이론은 분절음의 기저(Underlying Representation)의 자질은 해당 언어의 음소항목에 나타나는 대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만일 어떤 자질이 둘 이상의 음소를 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자질은 분절음들에 대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자질은 기저에 표시하지만, 어떤 자질이 분절음들의 아무런 대비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그 자질은 기저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어떤 언어가 그 음소 항목으로 /p, b, g/를 갖고 있으면서 /k/음소를 갖고 있지 못할 때 /p/와 /b/는 [voice]로 대비를 이루므로 [voice]는 기저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음소 /g/는 [voice]

로 대비되는 음소 /k/가 없으므로 기저에 [voice]가 표시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cor]의 하위자질인 [anterior]로 대비되는 분절음이 있으므로 급진적인 미표시 이론과는 달리 자질계층의 도식에 [cor]이 미표시 되는것을 기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조적 미표시이론은 분절음의 기저자질 결정을 분절음의 대조에 의하지 않고 급진적 미표시이론과 마찬가지로 분절음의 유효성을 기준하여 결정하는 이론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이론은 급진적 미표시 이론과 마찬가지로 [cor]이 미표시 되는 것으로 본다(Avery/ Rice(1988:103)).

3 [cor] 미표시이론

2장의 미표시이론들에 따르면 설정음(coronals)은 무표적 이어서 그 분절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은 미표시 되어야 한다(Carole Paradis / Prunet(1991), Prunet(1989)). 그리고 [cor]이 미표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러 음운현상(자음의 동화, 모음조화, 음절말음 중화현상등)과 설정음의 빈번성(Frequency)등을 들고 있다.

3.1 설정음의 동화

Kiparsky(1985)는 설정음이 다른 자음들에 비해 무표적이라는 증거로 설정음이 다른 자음에 비해 쉽게 다른 자음에 동화되는 현상을 실례로 보여 주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Catalan어의 비음 동화 현상이다.

(2) unassimilated alveolar:	so[n]	amics	'they are friends'
labial:	so[m]	pocs	'they are few'
labiodental:	so[ɱ]	feliços	'they are happy'
dental:	so[n]	dos	'they are two'
alveolar:	so[ɲ]	sincers	'they are sincere'
postalveolar:	so[ŋ]	rics	'they are rich'
laminopalatal:	so[n,][ž]	ermans	'they are brothers'
palatal:	so[n,][ç]	iuers	'they are free'
velar:	so[ŋ]	grans	'they are 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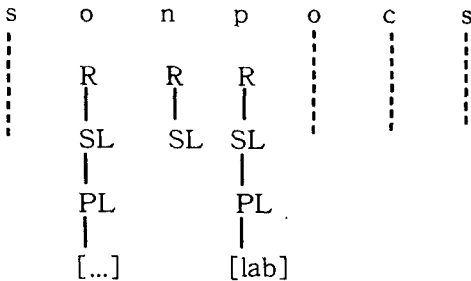
(2)의 자료는 Catalan어의 설정음인 비음[n]이 뒤에오는 자음의 조음점에 동화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보면 [n]은 모든자음의 조음점에 동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정음이 아닌 다른 세 비음인 [m], [ɱ], [ɲ]은 설정음인 [n]과는 달리 인접한 자음의 조음점에 자유롭게 동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3)/m/:	so[m] amics	'we are friends'
	so[m] pocs	'we are few'
	so[ŋ] felixos	'we are happy'
	so[m] dos	'we are two'
	etc.	
/ŋ/, /p/:	ti[ŋ] pa	'I have bread'
	a[n] felix	'happy year'
	etc.	

(3)의 자료에서 볼 수있는 것처럼 순비음(labiodental)인 [m]은 단지 치경음(dentals)으로 만 동화되고, [ŋ]과 [p]은 어떤 분절음의 조음점에도 동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을 Kiparsky는 설정비음(coronodentals)인 [n]이 가장 무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미표시이론을 이용하여 자질계층이론으로 설명하면 다음의 도식과 같다.

(4) sonpocs --> sompocs



상의 도식과 같이 설정비음인 [n]은 미표시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무표적이어서 그 조음점자질인 [cor]이 미표시되므로 자질계층 도식의 조음점마디에 하위 자질이 존재하지 않아 조음점마디조차 없으므로 인접한 자음의 조음점마디(뒤에오는 자음의 조음점마디)가 설정음에 확산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러나 설정음인 [n]과는 달리 다른 분절음들은 이미 자질계층의 도식

22 고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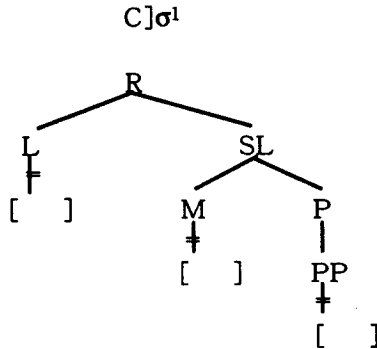
에 조음점자질의 하위자질이 표시되어 있어 인접한 자음의 조음점에 동화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3.2 종성(Coda) 중화 현상

미표시이론은 선형음운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종성이 중화되는 음운현상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표시이론에 의한 종성 중화현상의 명확한 설명은 미표시이론이 타당하다는 근거로도 제시된다.

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들에서 종성 혹은 어말음이 중화하는 음운현상이 발견된다(German, Thai, Sanskrit, Klamath 등).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종성에서 [ph]가 중화되어 [pɿ]로, [th, s, s', c, ch]가 중화하여 [tɿ]로, [k', kh]가 중화되어 [kɿ]로 실현된다. 따라서 국어의 종성으로 실현되는 음은 [p, t, k] 세개 뿐이고, 여기에 유성음 [m, n, ŋ, l]이 합하여 7개만이 종성으로 실현된다. 이처럼 종성이 중화하는 현상을 미표시이론을 이용한 자질계층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Kim 1987).

(5) 종성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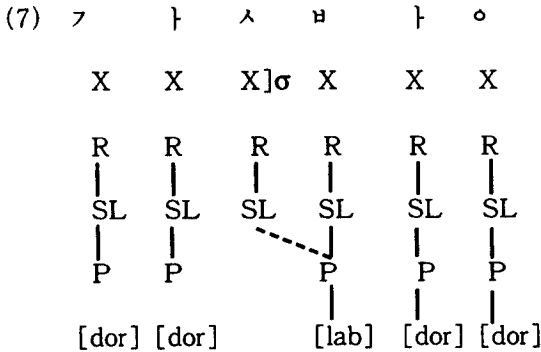


(5)에 보여지는 것처럼 분절음의 모든 자질들의 연결선을 끊어 미표시 분절음으로 하면 종성중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상기의 도식에서는 자질들의 연결선을 잘라 하위자질 만이 미표시 된 것으로 설명되나 다음의 종성이 설정음이 오는 자료의 설명은 급진적 미표시 이론가들이 주장하듯 조음점마디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야 다음의 자료를 설명하는데 자연스러울 것이다.

(6) 갓방 --> 갑방, 덧방 --> 덩방, 낫방울 --> 늑방울,

뚝바늘 --> 뚝바늘, 옛보다 --> 엽보다
 돋보기 --> 돋보기, 돋보이다 --> 돋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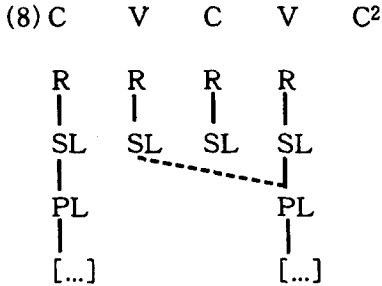
상기의 자료들은 종성의 조음점이 [cor]인 자음들로 바로 뒤따르는 자음의 조음점 [lab]에 동화하는 음운현상을 보이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을 미표시이론을 이용한 자질계층이론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도식은 ‘갓방’이 ‘갑방’으로 발음되는 음운현상을 도식한 것으로, 종성인 ‘ㅅ’은 그 조음점 자질이 [cor]로써 급진적 미표시이론에 의하면 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음점 마디가 없다. 그러므로 다음음절의 조음점마디가 쉽게 확산 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며, 역으로 종성의 설정음은 조음점마디가 없다는 미표시이론의 중요한 근거도 되는 것이다.

3.3 투명성(Transparency)

Paradis / Paradis/Prunet(1989, 1991) Prunet(1989, 1991)에 의하면 설정음은 가장 무표적인 자음으로 그 조음점자질인 [cor]이 미표시되어 자질계층 도식에서 조음점마디를 갖지 않으므로 설정음 앞의 모음이 설정음을 넘어 뒤의 모음에 자유롭게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설정음은 인접한 분절음인 모음의 조음점자질 확산에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은 조음점의 자질이 [cor] 이므로 미표시이론에 의해 미표시 되므로 자질계층상에 조음점마디의 하위자질이 없어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 모음의 조음점마디가 자음뒤의 모음에 확산되어 모음이 조화되는 모음조화의 설명이 중간에 있는 자음으로 인해 어려웠으나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이론 이었다. 이처럼 자음을 넘어 모음들이 조화를 이루는 음운현상의 분석을 통해 [cor]이 미표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보완 되었다.³

3.4 빈번성(Frequency)

Maddieson(1987)과, Fry(1947)에 의하면 어떤 주어진 언어에서 자음항목 가운데 다른 자음과 비교하여 설정음이 유달리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활음(glides)은 전혀 없고 설정음은 13개 있으며 순음은 5개, 연구개음(velars)은 2개 있다. 그리고 불어에서도 비슷한 분포로 5개의 순음, 9개의 설정음, 2개의 연구개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설정음은 다른 자음에 비해 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설정음은 언어 항목에만 많은것이 아니고 표현되는 말에서도 다른 자음에 비해 빈번히 출현한다.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에서 설정음은 순음이나 연구개음에 비해 세배나 더 많다. 이런 기준에 의해 Maddieson(1987)은 만일 어떤언어에 /p/가 있으면 /k/가 당연히 있으며, /k/가 있으면 /t/는 말할것도 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찰음(fricatives)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정음인 /s/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317개 언어 중에서 /s/는

무려 266개 언어에 있으며 /s/는 146개의 언어에, /f/는 135개의 언어에, /x/는 145개의 언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음의 경우에도 설정음인 /n/은 무려 316개의 언어에 존재하지만 순음인 /m/은 299개의 언어에 연구개음인 /ŋ/은 167개의 언어에만 존재하여, 설정음이 그 존재수에 있어서 다른자음들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정음이 다른 자음들에 비해 더욱 무표적이며 보편적(universal)인 분절음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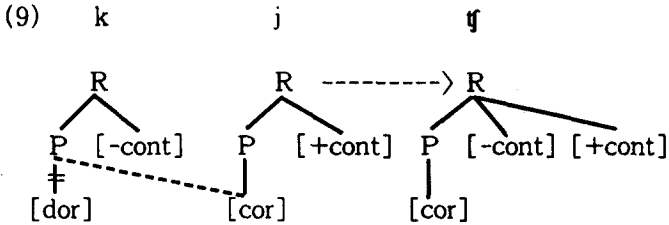
4 [cor]미표시이론의 한계

3장에서 우리는 설정음의 경우 가장 무표적인 것으로 그 조음점인 [cor]이 미표시 되어야 하며, 자질계층도식에서도 [cor]이 미표시 되어 조음점마디의 하위자질이 없으므로 조음점마디 조차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여러 음운현상들을 통해 미표시이론의 당위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cor]을 미표시 하고 자질계층의 조음점마디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 될 수 있는 여러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연 [cor]을 미표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자 한다.

또한 Clements(1989, 1991)는 자음과 모음의 자질을 통일 하면서 전설모음을 자음과 마찬가지로 그 조음점을 [cor]로 정의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cor]이 미표시 되어야 타당한지 어떤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설모음 특히 전설고모음(front high vowel)인 [i]의 조음점을 [cor]로 정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살펴보겠다.

4.1 구개음화(Palatalization)

Aditi Lahiri / Vincent Evers(1991)에 의하면 세 가지 형태의 구개음화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연구개음이 구개음화하는 음운현상이고, 둘째는 설정음 안에서 조음위치만 변화하는 구개음화 현상이며, 마지막으로 이차구개 조음(secondary palatal articulation)이 첨가되는 구개음화현상이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첫번째 것인 연구개음이 구개음화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연구개음의 조음점자질 [dorsal]이 삭제(delinking)됨과 동시에 [cor]마디가 확산(spreading)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다음 도식처럼 [k]가 [j]의 영향으로 [tʃ]로 변화하는 음운현상인 것이다.



상기의 도식에 의하면 연구개음인 [k]가 뒤에 오는 설정음 [j]의 조음점인 [cor]에 동화하는 구개음화현상을 보인 것이다. 미표시 이론에 의하면 [j]의 조음점자질인 [cor]은 미표시되어 조음점마다 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k]가 존재하지도 않는 [j]의 조음점에 동화 할 수 있다는 것인가?

4.2 중성(어말자음)의 동화

중성의 중화현상이 [cor]이 미표시 되어야 한다는 [cor] 미표시 이론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3장에서 보았다. 중성자음인 설정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의 미표시는 중화현상을 명시적으로 설명 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성의 조음점이 다음 음절 초성(onset)의 조음점에 동화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음 자료는 중성인 설정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이 미표시되고 조음점 마디 조차도 없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 (10) 한밤 -- 함밤, 겨가지 -- 격가지, 꽃바구니 -- 곱바구니.
- (11) 발나물 -- 반나물, 뱃나루 -- 뱐나루, 반나절 -- 반나절
- (12) 철부지 -- *첩부지, 탈곡기 -- *탁곡기.

(10)의 자료로 보아 중성은 그 조음점이 미표시 되어야 하는 듯하다. 그러나 중성에서만 미표시 되어야 하지 설정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이 초성에서 까지 미표시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12)에서 처럼 ‘발나물, 반나절’의 경우 중성과 다음 음절의 초성 모두가 [cor] 이므로 급진적인 미표시 이론처럼 모두 미표시 될 경우 첫음절의 중성이 동화될 조음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 그러나 한걸음 양보하여 (11)의 ‘발나물’, ‘반나절’과 같은 자료는

급진적미표시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 할 것 같다. 선행하는 음절의 종성과 뒤따르는 초성 모두 설정음 이므로 모두 미표시 되어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아서 자질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조음점자질인 [cor]이 채워지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 (12)의 ‘ㄹ’은 뭔가 다르다. 비록 그 음이 설정음으로 분류된다 해도 조음점이 미표시 되어서는 불가능하다. 만일 ‘ㄹ’의 조음점을 미표시 할 경우 ‘탈곡기’가 다른 설정음처럼 뒤 음절 초성의 조음점에 동화되어 ‘탁곡기’로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은 [cor]이 미표시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는 문제가 된다.⁴

4.3 자음의 연음 현상

4.2에서 보았던 자료들은 선행음절의 종성과 뒤음절의 초성이 모두 자음의 음가가 존재하는 자료들 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들은 선행음절의 종성은 설정음이 있지만 뒤따르는 음절의 초성은 음가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연음이 일어난다. 즉 선행음절의 종성이 뒤따르는 음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 하는 것이다.

(13) 꽃+을 -- 꽃출 / 꼬출, 앉은뱅이 -- 안즌뱅이,

급진적 미표시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종성의 [cor]은 미표시 되어 뒤따르는 음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 할 수 있는 자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가? 그 결과로 ‘앉은뱅이’가 ‘안즌뱅이’로 발음되지 않고 ‘*안은뱅이’로 발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종성인 ‘ㄴ’이 있으므로 ‘안는뱅이’로 발음되어야 하는가?⁵ 이와 같은 현상을 볼때 [cor]을 미표시 해야 한다는 급진적 미표시 이론에 의심이 간다.

다음의 자료는 상기의 자료와 달리 종성이 설정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정음과 순음, 혹은 설정음과 연구개음이 함께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앞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뒤따르는 음절의 초성이 음가가 없는 것이다.

(14) 달다--담다 ---> 달믄곳, 밝다--박다 --> 발근달(발다),
 젊다 -- 젊다 -- 절믄이,

종성이 두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당연히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키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그리고 탈락하는 자음을 보면 그 자질이 [cor]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을 통해 우리는 자음 [cor]이 미표시 된다고 유추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한결음 나아가 접자음으로 끝나는 종성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첨가 할 경우 그 양상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젊다’에 ‘은이’를 첨가하면 ‘젊다’에서 사라졌던 ‘ㄹ’이 되살아난다. 다시 말해 ‘젊은이’가 되어야 함에도 ‘젊은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자음[cor]이 미표시 된다고 보다는 두개의 자음이 음절 말에서 하나의 자음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뒤 따르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는 앞의 음절말 자음중 하나가 뒤 음절의 초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 [cor]자음도 미표시 되어서는 곤란하고 삭제한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듯 하다.

4.4 설정음의 투명성

미표시이론은 설정음이 미표시되어 조음점을 갖지 않으므로 투명하여, 모음조화, 혹은 자음을 넘어 자질이 확산되는 모음의 음운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자료들은 국어의 모음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으로 음라우트현상이라 불리는 자료들이다.

- (15) [모음 ㅂ]: 아비--애비, 두꺼비--두께비, 고비--괴비, 누비 --늬비
 [모음 ㅍ]: 앞이--애피, 덮이다--데피다, 높이--뇌피
 [모음 ㅃ]: 남이--내미, 어미 -- 에미, 도미--되미, 꾸미다 -- 뉘미다
 [모음 ㄱ]: 아기--애기, 먹이다--멕이다, 고기--괴기, 구김살 -- 귀김살
 [모음 ㅋ]: 막히다--매키다, 부엌이--부에키, 속히--쇠키, 움키다--웁키다
 [모음 ㅇ]: 장이--쟁이, 덩이--뎡이, 공이--꿍이, 모퉁이--모뎡이
 [모음 ㅎ]: 쌓이다--썰이다, 놓이다--뇌이다.

- (16) 가시 --> *개시, 어디 --> *에디, 소리 --> *쇠리
 가지 --> *게지, 어머니 --> *어메니,

(15)의 자료들은 자음 ‘ㅂ, ㅍ, ㅃ, ㄱ, ㅋ, ㅇ, ㅎ’을 사이에 두고 자음 뒤의 모음 ‘ㅣ’의 조음점이 자음앞의 모음에 확산되는 음운현상으로 설명되는 음라우트 현상이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에서 주목해야 할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음라우트 현상은 어떤 이유에서 모음사이의 자음으로 유독 설정음만 제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표시이론에서 처럼 설정음이 조음점이 없는 것으로 미표시 된다면, 앞모음 뒤의 설정음은 조음점 마디가 없으므로 자음뒤의 모음 자질이 앞자음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유독 설정음 만이 확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을 미표시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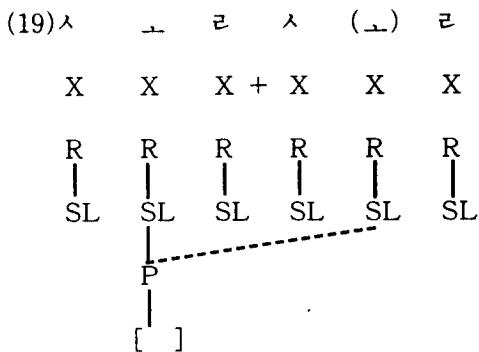
본래 설정음의 투명성은 모음조화의 자연스러운 설명을위해 제

기되었던 것이다. 미표시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모음조화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설정음이 있으며, 그 설정음을 넘어 모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정음의 조음점이 미표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모음조화현상이 모음과 모음사이에 설정음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어는 의성·의태어에서 모음조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를 보자.

- (17) 술술 -- 술술, 줄줄 -- 줄줄,
 팔락팔락 -- 펠럭펠럭, 짜랑짜랑 -- 쩌렁쩌렁
- (18) 소곤소곤 -- 수군수군, 깜짝깜짝 -- 껌쩍껌쩍,
 꿈작꿈작 -- 껌적껌적,
 쿵덕쿵덕 -- 쿵덕쿵덕, 찰각찰각 -- 철걱철걱,

(17)의 자료들은 국어에서의 모음조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술술’... ‘짜랑짜랑’등의 모음조화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갖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⁶

상기의 도식은 (17)의 ‘술술’을 도식화 한것이다. 이 도식은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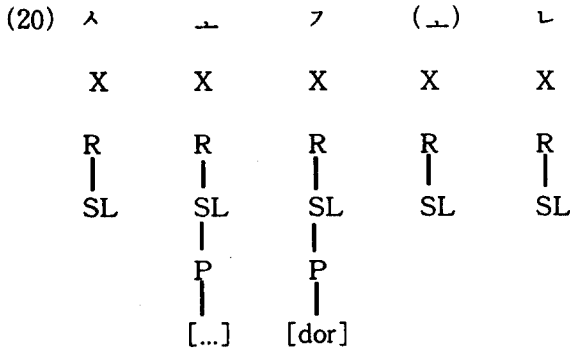
표시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설정음의 경우 그 조음점마디가 없다. 설정음의 조음점마디가 없음으로써 모음 ‘ㅅ’의 조음점 자질이 사이에 있는 설정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뒤에오는 모음에 확산될 수 있다.⁷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모음조화가 항상 설정음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것은 아니다. (18)의 ‘깜짝깜짝’, ‘쿵덕쿵덕’등의 모음조화는

30 고영진

사이의 자음이 설정음이 아닌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은 '술술'의 도식이다. 이 도식을 보면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는 자음이 설정음이 아니고 연구개음인 것을 알 수 있다. 미표시 이론에 의한 자질계층이론은 설정음만 그 조음점 자질이 미표시되어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명하여 모음조화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과 모음사이의 자음이 설정음이 아닌 경우의 모음조화는 미표시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그들이 제안한 [cor]의 투명성에 의한 모음조화의 설명은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cor]의 미표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자음과 모음의 자질 통일

모든 음운현상이 자음과 자음사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음이 모음에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음운현상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설정음이 모음의 조음절을 [cor]로 변화시키고, 모음이 자음의 조음점을 [cor]로 변화시키는 음운현상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들을 보면서 의심이 가는 것은 모음도 어떤 모음은 [cor]이라는 조음점자질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만일 갖고 있다면, 그 모음은 설정음에서 처럼 미표시되어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지 자음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Clements(1989, 1991)는 자음과 모음자질의 통일을 시도 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녀가 제안했던 모든 모음의 자질을 검증하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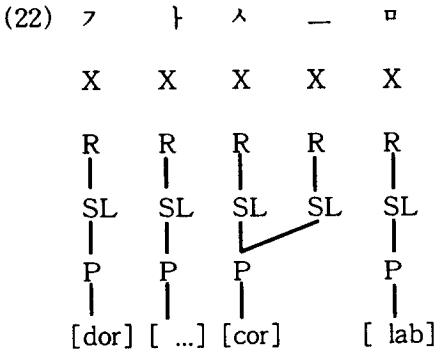
않을 것이지만 미표시 이론에서 주장하는 [cor]의 독특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cor]로 분류될 수 있는 모음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 보겠다.

5.1 모음이 [cor]자질을 가질 가능성

Clements(1989, 1991)는 자음과 모음의 자질은 전혀 다른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으로 통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여러 음운현상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음의 국어자료는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준 음운현상이 아니고, 그 역으로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주어 모음을 변화시킨 자료이다.

- (21) 가슴 -- 가십, 쓸다 -- 썰다, 즉시 -- 직시, 증거 -- 정거,
늦은봄--늦인봄, 굶은비--굶인비, 즉효 -- 직효, 측량 -- 칙량.

상기의 자료는 일부 남부지방에서 사용되는 방언들이다. 이자료들은 ‘ㅅ, ㅆ, ㅈ’ 다음의 모음 ‘ㅡ’가 설정음인 ‘ㅅ, ㅆ, ㅈ’의 조음점인 [cor]을 닮아 ‘ㅣ’로 변화한 음운현상을 보이는 자료들이다.⁸ 자음 ‘ㅅ, ㅆ, ㅈ’의 조음점 자질은 [cor] 이므로 그 조음점의 영향을 받아 조음점이 변화된 모음 ‘ㅣ’도 그 조음점 자질이 [cor]이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Clements(1991)도 전설모음의 조음점 자질이 [cor]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상기의 자료를 보아도 타당한 듯하다. 다시 말해 모음 ‘ㅡ’가 선행하는 설정음의 조음점에 동화되어 ‘ㅣ’로 되었으니 당연히 ‘ㅣ’의 조음점은 [cor]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도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의 도식은 ‘가슴’이 ‘가심’으로 변화하는 음운현상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 도식은 조음점자질이 없어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모음 ‘ㅡ’는 당연히 선행하는 설정음의 조음점 마디가 확산되어 ‘ㅣ’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변화된 전설고모음인 ‘ㅣ’의 조음점 자질이 [cor]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일부지방에서 사용되는 국어의 방언으로 앞의 자료와는 반대로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주어 자음의 조음점을 [cor]로 변화시킨 자료이다.

- (23) 길 -- 질, 기둥 -- 지둥, 기름 -- 지름, 김밥 -- 짐밥
 키다 -- 치다(돼지를 치다), 키 -- 치
 힘 -- 심, 힘줄 -- 심줄, 낚새 -- 째새

상기의 자료는 뒤에오는 모음 ‘ㅣ’가 선행 자음 ‘ㄱ, ㅋ, ㆁ, ㅎ’ 등을 ‘ㅈ, ㅊ, ㅍ, ㅈ’등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변화된 자음들의 조음점 자질이 모두 [cor]로 바뀐것을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설정음이 아닌 모음 ‘ㅣ’가 자음의 조음점 자질을 [cor]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명백히 모음 ‘ㅣ’의 조음점도 [cor]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음과 모음의 자질을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다음의 영어자료 또한 모음 [i]가 선행자음의 조음점 자질을 [cor]로 변화시킨 자료로써 모음 [i]의 조음점자질이 [cor]이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자료이다.

- (24) reciprocal--reciprocity, electrical--electricity, critical-- criticism,
 catholic--catholicism, didactic--didacticism, syllabic--syllabicity,
 metabolic -- metabolism, metrical -- metricism
 allege -- allegation, rigid -- rigor, rignicide -- regal

(24)의 자료는 자음 [k, g]가 모음 [i]의 영향으로 [s, z]로 변화되는 음운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의 설명도 변화된 자음의 조음점자질이 [dor]에서 [cor]로 바뀐것으로 보아 모음 [i]의 조음점 자질이 [cor]이며 이 조음점자질이 선행자음의 조음점에 확산되어진 음운현상으로 설명함이 타당 할 것이다.

5.2 [cor]모음의 미표시?

앞장에서는 과연 모음 ‘ㅣ’의 조음점 자질을 [cor]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해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모음 ‘ㅣ’의 조음점 자질도 [cor]이라는 전제아래 본 논문의 주제로 돌아가

[cor]모음도 미표시이론에 의해 조음점마디가 미표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자료는 설정음의 영향으로 모음의 조음점 자질이 [cor]로 변화된 음운현상으로, 이와 같은 음운현상의 설명을 위해서는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점 자질인 [cor]이 미표시 되어 조음점마디가 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규명되어야 하는 일부 남부지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언이다.

- (25) 가슴--가심, 쓸다--썰다, 즉시--직시, 증거--징거,
 늦은봄--늦인봄, 굶은비--굶인비, 즉효--직효, 측량--척량.

상기의 자료는 설정음인 'ㅅ, ㅆ, ㅈ' 다음의 모음 'ㅡ'가 설정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을 닮아 'ㅣ'로 변화한 음운현상을 보이는 자료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은 설정음이 뒤에온 모음 'ㅡ'에 영향을 주어 'ㅣ'로 변화 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장에서 우리는 모음 'ㅣ'의 조음점 자질이 [cor]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미 살펴 보았다. 이는 엄연히 선행하는 설정음의 조음점마디가 뒤따르는 모음에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표시이론이 주장하듯 설정음을 조음점마디가 없는 자음으로 남겨 놓을 경우 그와 같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설정음의 조음점마디를 미표시 할 경우 자음의 조음점이 없으므로 모음으로 확산되어질 자음의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는 '가슴'이 '가심'으로 변화되어 사용되는 방언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언이 상기의 자료처럼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음의 자료는 앞에서 정의했던 모음 'ㅣ'의 조음점 자질이 [cor] 인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전제아래, 다음의 자료는 조음점자질이 [cor]인 모음 'ㅣ'의 조음점마디가 선행하는 자음에 확산되는 음운현상을 보이는 일부지방에서 사용되는 방언이다.

- (26) 길 -- 질, 기둥 -- 지둥, 기름 -- 지름, 김밥 -- 짐밥
 키다 -- 치다(돼지를 치다), 키 -- 치, 힘줄 -- 심줄,
 힘 -- 심, 낚새 -- 찜새

상기의 자료는 모음 'ㅣ'의 조음점 자질인 [cor]이 선행자음 'ㄱ, ㅋ, ㆁ, ㅎ'의 조음점인 [dor]이 단절된 후 그 자음에 확산되어 [cor]자질을 가진 설정음 'ㅅ, ㅆ, ㅈ' 등으로 변화되는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미표시이론의 주장과 달리 모음을 [cor]로 설정하긴 했으나 미표시이론에 따라 모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역

시 자음의 경우처럼 미표시되어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상기의 자료를 [cor]인 모음 'i'의 조음점이 선행자음에 확산된 것이라는 설명이 불가능 하다. 확산될 조음점마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영어자료 또한 [cor]모음 [i]가 선행하는 자음에 영향을 주어 그 자음의 조음점 자질을 변화 시키는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27) reciprocal--reciprocity, electrical--electricity, critical-- criticism, catholic--catholicism, didactic--didacticism, syllabic-- syllabicity, metabolic--metabolism, metrical--metricism
allege--allegation, rigid -- rigor, rigitide--regal

상기의 영어자료를 상세히 보면 연구개음 [k, g]가 전설고모음 [i]의 영향으로 설정음인 [s, z]로 변화한 음운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도 전설고모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이 선행자음의 조음점에 확산되어진 음운현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표시 이론처럼 [cor]을 조음점이 없는 것으로 미표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몇몇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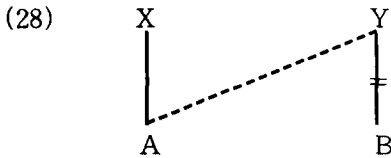
지금까지 미표시이론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cor]미표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곧이어 미표시이론에 의한 [cor]의 미표시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 음운현상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6.1 연결선의 확산과 삭제

[cor]미표시이론은 설정음이 다른 자음에 비해 음운변화에 자유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음의 [cor]을 미표시하고 나아가 조음점마디 까지도 미표시 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서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cor]을 미표시하고 그에 따른 조음점마디 조차도 미표시 할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or]의 미표시에 의한 조음점마디의 미표시 보다는 Halle / Vergnaud(1980), Goldsmith(1981), Steriade(1982), McCarthy(1984) 등이 주장했던 연결선의 확산(Spreading)과 삭제(Delinking)로 분석함이 타당할 듯 하다. 동화현상은 단순히 선의 확산만으로 설명하며, 확산과 삭제는 별개의 음운현상이다.

자립분절음운이론에서는 동화현상을 다음의 도식처럼 선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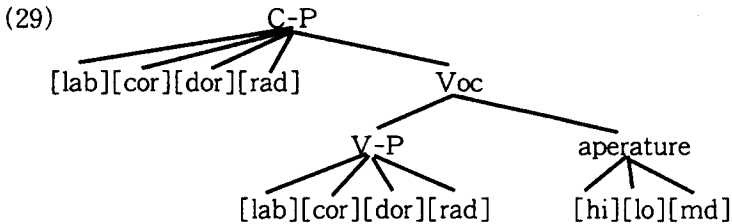
과 삭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Poser(1982), Mascaró(1987), Cho(1990) 등은 중화의 경우 선의 확산없이 선의 삭제만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여러 언어들(Shona, Japanese 등)에서 선의 삭제 없이 선의 확산만으로 동화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면서 선의 확산과 삭제는 동시적인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선의 확산과 삭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동화현상을 자질선의 확산과 삭제를 동시에 표현하지 않는다. 연결선의 확산과 삭제는 각기 다를 음운현상으로 보아야 한다.⁹



(28)에 의하면 A가 확산되는 자질이며 동화가 일어난 결과는 확산된 자질 A가 X와 Y에 모두 연결되고 자질 B는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결선의 확산과 삭제는 미표시 이론으로 설명되는 많은 부분을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현상은 (28)에서 볼수 있듯이 한 요소가 연결선에 의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며 중화현상과 같은것은 연결선이 삭제되는 것이다.¹⁰

6.2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 면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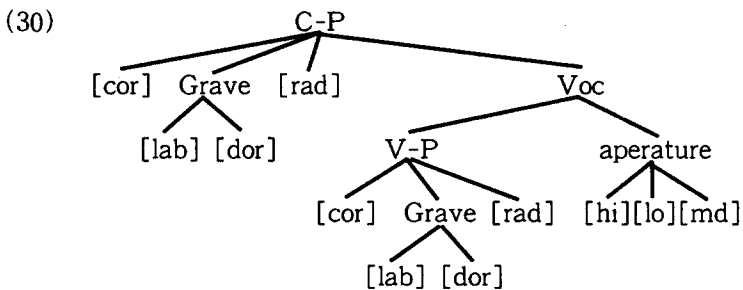
자음에만 관계하는 음운현상, 혹은 모음조화와 같은 자음에는 상관없이 모음에만 관계하는 음운현상의 설명에 자질계층이론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모음조화의 설명으로 어떻게 하면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는 자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모음으로 자질의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이 [cor]자질의 미표시 이론이 었다. 그러나 모음조화에서 모음사이에 있는 자음이 항상 설정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음운현상을 설명하기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본 고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 마디를 하나의 면에 놓지 않고 Clements(1989, 1991)가 제시했던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를 서로 상이한 면에 존재시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상기의 도식은 Clements(1991)이론의 자질계층 도식중에서 조음점마디 부분만을 표현한 것으로 자음의 조음점 마디아래에 모음의 조음점마디가 있으나 서로 상이한 면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식에 의하면 자음과 모음이 서로 침범함이 없이 자음과 자음,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cor] 미표시등의 방법을 통해 임시적으로 모음조화와 같은 음운현상에 대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6.3 Grave 마디의 도입

미표시이론이 설정음을 미표시하고자 한것은 설정음이 유독 다른 자음들에 비해 다른 자음에 쉽게 동화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설정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이 [cor]을 미표시하는 방법 뿐 인가? 아직 상세한 검증을 하지는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Clements(1991)의 자질계층이론에 첨가하여 조음점마디의 하위 마디로 Grave마디의 설정을 제안한다.¹¹ Grave마디를 도입한 조음점마디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30)은 Grave마디의 도입으로 [cor]과 [lab], [dor]이 놓인 위치가 달라 McCarthy(1988)가 언급했듯이 놓인 위치에 따라 음운현상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른 것이다.

6.4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 통합

6.2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 마디를 서로 상이한 위치에 놓아 분리함으로써 모음조화와 같은 음운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 했었듯이 자음이 모음에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주는 음운현상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현상의 설명에는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의 분리는 역효과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 면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¹²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 면을 통합하면 자음과 모음이 서로 영향을 주는 음운현상의 설명이 가능해지며, 국어의 윙라우트와 같은 음운현상은 자음과 모음의 조음점마디 면을 통합한후 OCP(Obligatory Contour Principle)의 적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7. 결 론

비선형음운이론에서의 미표시 자질계층이론의 도입은 설정음들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모음조화, 설정음의 인접분절음의 조음점에서의 자유로운 동화, 종성의 중화 등과 같은 여러 음운현상을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게 했다.¹³ 그러나 미표시이론으로 분석하고 그 미표시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했던 여러 음운현상에 문제가 있음을 4장과 5장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자질계층이론에서의 미표시이론은 설정음의 조음점자질인 [cor]을 미표시 하고 상위의 조음점마디 조차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이론인데, 이와 같은 이론은 설정음이 영향을 주어 비설정음을 설정음으로 변화시키는 구개음화, 그리고 설정음의 종성이 다음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음운현상, 국어의 종성이 복합분절음(complex segment)일때 종성중화로 사라졌던 분절음이 다시 다음음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 하는 음운현상 등의 설명이 불가능함을 보았다. 또한 설정음은 조음점이 없어 모음조화와 같은 음운현상에서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국어의 윙라우트현상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전설고모음의 조음점을 [cor]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점검하여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음의 [cor]도 미표시이론이 주장하듯 미표시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한 결과 미표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도 확인했다. 즉, 전설고모음의 조음점인 [cor]에 동화되는 여러 음운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cor]을

미표시 할 경우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았다.

마지막으로 본고 에서는 [cor]을 미표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나열하여 미표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표시이론을 대치할 수 있는 대안도 간단히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자질계층이론에 [cor]을 미표시 하여 조음점을 미표시 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었던 음운현상을 [cor]을 미표시 하지 않고, 연결선의 확산과 삭제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Grave마디의 도입과 조음점마디 면의 분리와 통합을 통해 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 뿐만 아니라, 자음사이에서만 혹은 그 반대로 모음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현상의 설명도 가능하게 했다.

내 용 주

1. (Kim 1987)을 원용한 것이다.
2. 모음조화는 무슨 이유에서 조음점마디가 없는 인접한 자음에 모음의 조음점자질이 확산되지 않고 굳이 그 자음을 넘어 모음에 확산되어야 하는가?
3.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미표시 이론에 의하면 [cor]의 경우 조음점마디가 없어 동화현상에 자유로운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모음조화에서는 인접한 조음점이 없는 자음이 있는데도 굳이 그 자음을 넘어 모음으로만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 자질계층 구조에서도 다른 [cor]자음과 는 다른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한다. (비음이 상위 계층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음이 다른 음들에 비해 음운현상데 더욱 민감한한 것에 비춘것이다. 그러나 'ㄹ'의 경우는 비음과 반대로 음운현상에 더욱 둔감한듯하다. 이점도 자질계층이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여기서 중성은 'ㄴ'과 'ㄷ' 모두 설정음 이므로 모두 미표시 되어야 한다. 결국 '*안는뱅이'의 출현도 불가능 하다.
6. 국어의 모음조화는 전설, 후설, 혹은 입술의 모양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보아', '고아'처럼 [lab]과 [dor]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 Clements(1991)가 제시한 모음의 자질 [lab], [cor], [dor], [rad] 만으로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7. 여기서도 문제는 있다. 미표시이론을 도입한 자질계층이론에 의하면 자음과 모음이 동일한 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음이 모음자질의 확산을 방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이유에서 조음점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자음으로 선행하는 모음의 조음점이 확산되지 않고 유독 뒤에오는 모음에만 확산되어야 하는 것인가?

8. 국어의 모음 ‘ㅡ’는 조음점이 있는가? 조음점이 있다면 어디인가? 그 자질은 무엇인가? 국어의 경우 모음중에서 가장 무표적인 모음이 ‘ㅡ’가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모음의 조음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미표시이론에는 반대하지만 모음 ‘ㅡ’와 같은 경우 조음점은 미표시되어야 할 것 같다.
9. 국어의 중성중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산규칙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삭제규칙이 필요할 뿐이다.
10. 자세한 내용은 고영진(1994)을 참조
11. 고영진(1994)에서 제안했으며, 다음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12. 고영진(1994, 1995)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13. 미표시자질계층이론은 자질계층이론에 [cor]미표시이론을 도입한 것을 일컫는다.

참 고 문 헌

- 고영진 (1994), 자질계층이론: 문제점과 제안.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 고영진 (1995), “자질면의 통합과 자질계층이론,” 언어학 2. 대한언어학회
- Archangeli, D.(1984), *Underspecification in Yawelmani Phonology and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 _____ (1988), “Aspects of Underspecification Theory,” *Phonology* 5:183-207.
- Archangeli, D. and D. Pulleyblank.(1986),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University of Arizona and USC. Unpublished. MIT Press, Cambridge.
- Avery, P. and K. Rice(1988), “Segment Structure and Coronal Underspecification,” *Phonology* 6(2):179-200.
- Browsky, T.(1986), *Topics in the Lexical Phonology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Cho, Y. Y.(1990), *Parameters of Consonantal Assimilation*. Stanford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Clements, G. N.(1989), “A Unified Set of Features for Consonants and Vowels,” Unpublished ms., Cornell

- University.
- _____ (1991), "Place of Articulation in Consonants and Vowels: a Unified Theory," Ms. Cornell University.
- Fry, D.(1947),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Speech Sounds in Southern English," *Archives Neerlandaises de Phonetique Experimentale* 20.
- Goldsmith, J.(1981), "Subsegmentals in Spanish Phonology: an Autosegmental Approach," in W. W. Cressey & D. J. Napoli(eds), *Linguistic Simposium on Romance Languages* 9 :1-6.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Grignon, A.-M.(1984), *Phonologie Lexicale Tri-dimensionnelle du Faponais*. Doctoral Dissertation.
- Halle, M. and Vergnaud, J-R.(1980), "Three-dimensional Phonology," *Journal of Linguistic Reearch* 1: 83-105.
- Kim, K.-H. (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s: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 Kiparsky, P. (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I-S. Yang(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 _____ (1985), "Some Consequences of Lexical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2:85-138.
- Lahiri, A. and Evers, V.(1991), "Palatalization and Coranality," *Phonetics and Phonology* 2: 79-100.
- Maddieson, I.(1987),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Studies in Speech Scienc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 Mascaró, J.(1987), "A Reduction and Spreading Theory of Voicing and other Sound Effects," ms., Universitat Autonoma de Barcelona, Spain.
- McCarthy, J.(1988), "Feature Geometry and Dependency: A Review," *Phonetica* 43: 84-108
- Mester, R and J. Itô. (1989), "Feature Predictability and Underspecification: Palatal Prosody in Japanese Mimetics," *Language* 65: 258-293.
- Mohanan, K. P.(1989), "Syllable Structure in Malayalam." *Linguistic Inquiry*. 20: 589-626.
- Paradis C. and J-F. Prunet(1989), "On Coronal Transparency." *Phonology* 6: 317-348.
- Poser, W.(1982),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and Action-

- at-a-Distance." In vand der Hulst and Smith (1982, Part II).
- Pulleyblank, D. (1986), "Underspecification and Low Vowel Harmony in Okpe."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7: 119-53.
- Steriade, D.(1982), *Greek Prosodies and the Nature of Syllab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1987), "Locality Conditions and Feature Geometry," *NELS* 17:595-617.

경기도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고영진